

KLPGA 임원(이사) 입후보 출마 포부서

안녕하세요

이사에 입후보한 손혜경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이사를 맡아 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 또한 많았습니다.

아는 것도 모자랐고, 판단이 서툴렀기도 했고, 때로는 용기가 없어 주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사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보다 훨씬 더 잘 할 자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를 맡았던 지난 4년은 우리 협회에 큰 변화가 많았습니다.

해마다 몰라볼 만큼 협회의 위상과 몸집이 성장했습니다.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딜 가나 스타 대접을 받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역량과 정성은 이사회역의 역량과 정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골프계의 동향과 트렌드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명확한 판단력과 집행부의 잘잘못을 주저없이 지적할 줄 아는

이사들이 포진한다면 분명히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이사회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협회 이사는 집행부의 일원이면서도 회원과 집행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또 한번 이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수들의 목소리,

회원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협회 행정에 반영하도록 힘쓰려 합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토대로 이사로 일할 기회를 마련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바라면서,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의 행복한 2024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4일

성명 : 손혜경



KLPGA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귀중